정교회주보

제2406호

2023.02.05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4세기에 조성된 안티오키아 성 베드로 동굴 성당(사진)이다. 50년경 베드로 사도가 이곳에서 활동했다고 전해진다. 초대 교회 신자들도 박해를 피해 이곳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안티오키아는 사도 바울로와 바르나바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이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기도 하다.(사도행전 11,26 참조)

뜨리오디온 시작
세리와 바리사이파 사람 주일
성 아가티 순교자
(제1조 • 조과 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주님 입당 축일 제2응송 ····· 164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주님 입당 축일 찬양송 ····· 164
성당 찬양송
주님 입당 축일 시기송 ····· 164
사도경 : 디모테오 후 3,10~15 ····· 봉독서 407
복음경 : 루가 18,10~14 ····· 133
주님 입당 축일 성모송 ····· 166
주님 입당 축일 영성체성혈송 ··· 166

하느님께 기도드릴 때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때, 절대로 하느님을 강요하거나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질병과 같은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혹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드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어 낼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하느님께 기도합시다. 하느님께서 정중하게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간구합시다.

하지만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간구의 기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요청해도 하느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느님이 옳습니다.

'향기로운 삶과 말씀' 중에서 [정교회 출판사]

제19회 한국 정교회 대교구 의회에 즈음하여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2023년 사목 지침서

기도는 영혼의 산소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골로사이 4,2)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여러 적절하고 타당한 말들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는 하늘과의 대화이다. 연약한 인간과 전능하신 하느님과의 대화이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며 친밀한 친교이다. 영혼의 산소이다."라는 말들이 언급됩니다.

기도는 오직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의 자애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사람에게만 당신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요청에 응답해주십니다. 물론 우리의 요청이 "선한 것이며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일 때에만 그렇습니다.

기도는 가장 빠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사람들이 전자 통신을 통해 빠르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발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미 수 세기 전에, 배터리가 절대 소모되지 않는 완벽한 "휴대전화"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 완벽한 "휴대전화"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신비이며,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연락할 때 자주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바빠서 통화할 수 없어요." 혹은 "지금은 다른 사람이랑 통화 중이니 이따가 다시 걸어주세요."와 같은 말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느님께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과 무한한 인내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신비로운 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샘으로부터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기도의 힘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느님을 부르는 자들의 삶에서 수없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기도는 사탄에 대적하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사탄과 악령)을 쫓아낼 수 없다"(마르코 9:29 참조)라고 확증해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청했을 때(루가 11:1),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

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들이 설명하고 있듯이, 하느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사시는 동안 인간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개인적으로"(마태오 14:23), "홀로"(루가 9:18), 심지어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는 순간에도 혼자서 조용히(마르코 1:36) 기도하셨다는 사실에 의해 입증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광야에 머물며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낮 동안에는 사람들을 위해 힘들게 일하시고, 밤 동안에는 홀로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해 한적한 광야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회당에서나,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나, 수난을 당하시기 전 올리브 산에서나, 숨을 거두시기 전 십자가 위에서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잘 알려진 기도는, 신학적으로 뛰어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요한 복음사가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요한 17:1-26).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운 거룩한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도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루가 복음사가는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루가 24:53)라고 기록하며 복음서를 끝맺습니다. 또 매우 특징적인 것은 성 사도 바울로가 기도에 대해 언급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늘, 끊임없이"(로마서 1:9-10, 데살로니카 전 5:17), "언제나"(에페소 6:18), "밤낮으로"(데살로니카 전 3:10)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범을 따르던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삶에서 기도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열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초대 교회 시대부터, 기도에 더 헌신하기를 갈망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적한 광야로 떠나곤 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교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의 중추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수도사들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초기 3세기 동안의 카타콤과 그 후의 성당들은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집들도 "가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베풀어주신 창조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기 위해, 또 구세주 그리스도께 구원을 위한 간청을 드리기 위해, 매일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쳤습니다.

바로 이 전통을 수 세기에 걸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른 것이며, 바로 이 전통을 우리 교회의 모든 교부들과 스승들이 저술과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하느님의 빛을 받은 위대한 신학자들, 시인들, 성가 작사가들, 작곡가들은 그 스스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기도문과 성가들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 그들이 만든 이 기도와 성가들은 우리 정교회 전례가 아주 훌륭하고 풍부함을 잘 드러내줍니다.

(다음 주, 주보에서 계속됩니다)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삶과 업적을 기리는 도서를 발간합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삶과 업적이 담긴 책을 교회에서 출판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지난 47년 동안, 많은 사람이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많은 이들이 그분의 말씀, 조언, 행동, 자선, 협력, 예배 집전과 사목으로부터 받은 인상적인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기억을 글이나 음성 녹음, 영상 등을 통해 모으도록 합시다. 그리스에서도 많은 이들이 자료를 보내줄 것입니다. 외국의 신자들은 "대주교님께서 생애의 더 많은 부분을 한국에서 지내셨으니, 한국 신자들도 자신들의 기억을 기록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늘로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대주교님 곁에서 함께 한 기억들이 잊히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깁시다. 이 책은 한국 정교회의 역사로 남을 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정교회 역사에도 귀중한 자료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출판에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 식

▦ 대교구 겨울 수련회 공고

주일학교, 신데즈모스(예비신자 포함)를 대상으로 겨울 합동 수련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일(12일)까지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 2/17(금) – 2/19(주일)
(참가비 6만원)

장소 :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

▦ 제19회 대교구 의회

2023년도 대교구 의회가 지난 주일(29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1부에서는 '기도는 영혼의 산소입니다'라는 사목 지침이 발표되었고, 2부에서는 대교구 및 각 성당의 2022년 영적 사업 및 재정 결산, 2023년 영적 사업 계획 및 재정 예산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올해에도 한국 정교회의 발전과 신자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도합시다.

▦ 서울 성당 세례성사

지난 1월 22일(주일), 5명의 예비자가 로만 신부의 집전으로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세례자 : 박 알렉산드르, 반 엘리자벳, 김 알렉산드라,
이 미하일, 박 세르게이